

마포구 김경한 부구청장, 마포구의회 신종갑 행정건설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취임식에서 신임 김영식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한 단계 도약을 해야 할 때”라며 경영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밝혔다.

김영식 이사장은 우선 “공단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마포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존재 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객에게 대한 친절 봉사는 직원 모두가 실천해야 할 의무이고 안전 역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라며 고객친절과 시설안전 실천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또, “경영 혁신은 투명성과 공정성에서 출발하며 공단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 투명성은 필수이다”라며 “모두가 법규를 준수해야 질서 있는 선진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식 신임 이시장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고객 친절, 시설 안전, 투명 경영 등을 강조했다.

여기에 “인사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성을 기본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폭언이나 폭력, 부정한 청탁, 유언비어 등으로 공단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직원은 누구도 예외 없이 규정대로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마포구의회 신종갑 행정건설위원장 역시 단합된 모습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종갑 행정건설위원장은 “신임 김영식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 한다”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어려움이 많을 것인데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임직원 모두가 하나 돼서 이번 난관을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임 김영식 이사장은 1970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용돼 36년 동안 관악구, 노원구, 마포구, 용산구 등의 공직생활을 거쳐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상임 이사를 역임했다.

김도연 기자 thanknews@naver.com

<저작권자 © 마포땡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